

---

 논문
 

---

## 종교개혁기 독일 대학의 인문주의 개혁\*

- 튀빙겐과 하이델베르크를 중심으로 -

박 준 철

- |                     |                         |
|---------------------|-------------------------|
| I. 대학개혁의 필요성 대두     | III.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인문주의 개혁 |
| II. 튀빙겐 대학의 인문주의 개혁 | IV. 종교개혁과 독일대학          |

### I. 대학개혁의 필요성 대두

종교개혁은 독일의 한 대학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수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당시 교황청의 후원 하에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 논제」를 교내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면벌부 판매의 관행에 대해 그저 대학 구성원들과 학문적 토론을 벌이기 위해 부착했던 「95개 논제」는 루터의 의도와 달리 커다란 파란을 일으켰고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일종의 혁명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1520년 개혁운동의 주역 루터는 자신의 개혁사상을 집대성한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글」을 집필하였다. 당시 교회는 자정(自淨)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루터는 이 글에서 세속의 권력자들에게 기독교 사회의 개혁에 앞장설 것을 호소하였고 나아가 개혁되어야 할 사안들을 낱낱이 명시하고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하였다. 루터가 비상한 관심을 보인 개

---

\* 본 연구는 2007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과제임.

혁대상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학이었다. “대학들 역시 유익하고 철저한 개혁을 필요로 한다”<sup>1)</sup>는 것이었다. 개혁운동이 시작된 지 채 삼년이 안 되는 시점에서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의 요람이 되었던 대학에도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던 것이다.

루터가 절실하게 회구했던 대학개혁의 핵심은 교과목의 변경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헛된 노력과 헛된 공부를 하게 만들어 왔고 또한 그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케 한”<sup>2)</sup> 과목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일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루터가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던 대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다양한 저작들을 고도의 사변적 이론에 입각하여 가르치는 논리학 과목들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의 논리학은 복잡한 추론과 심층적 개념정의에 천착하면서 명확성과 정확성을 진리탐구의 요체로 삼았던 스콜라주의(scholasticism)를 대변하는 학문이었다. 중세의 상아탑을 석권한 스콜라주의에 힘입어 논리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 위상을 구가하였다. 논리학은 교양학부의 커리큘럼을 지배하였고, 상당한 논리학적 소양 없이 상위학부(신학, 법학, 의학)에서 수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중세대학의 총아였던 이 논리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재들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에 대한 난해한 주석서들이었다.<sup>3)</sup> 루터는 현학적이고 방대한 주석에 기초한 논리학 교육은 “논쟁과 육신의 피로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는다”<sup>4)</sup>고 단언하면서 자신이 모색한 대학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스콜라주의의 타파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오랜 세월 상아탑에 몸담아 왔던 교수 루터의 “개혁되지 않은 대학들보다 더 흉악하고 비참한 것은 없다”<sup>5)</sup>는 진단은 머

1) “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Concerning the Reform of the Christian Estate,” *Luther's Works*, 이하 LW(St. Louis, 1955-1986), vol. 44, p. 200.

2) *Ibid.*, p. 200.

3)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술을 설명하는 주석서들의 성격과 간략한 내용에 관해서는 James Overfield, *Humanism and Scholasticism in Late Medieval Germany* (Princeton, 1984), pp. 28-35 참조.

4) LW, vol. 44, p. 202.

5) *Ibid.*, p. 202.

지않아 독일대학에 찾아 올 예사롭지 않은 변혁을 예고하고 있었다.

스콜라주의를 그토록 질타했던 루터파 개혁가들은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가? 그들은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사변적 논리학 대신 가르쳐져야 할 학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만일 현재의 방식으로 교육되고 있는 교회법, 교서, 스콜라 신학, 철학, 논리학이 총체적으로 제거되지 않고 새로운 과목들이 설강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는다”<sup>6)</sup>라는 루터의 공언 속에 명시된 ‘새로운 과목들’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인문학이었다. 개혁가들이 당시 유럽의 학계와 교육계에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이른 바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studia humanitatis)’를 대학 교육에 적극 수용하려 했던 것은 바로 인문학이 교회개혁운동의 성공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개혁가들이 인문학의 확대를 교회개혁의 한 방편으로 삼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몇몇 인문학 과목들에 대한 개혁가들의 생각을 살펴보자. 우선 인문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어학은 종교개혁의 슬로건인 ‘성경지상주의(sola Scriptura)’의 구현과 밀접히 맞물려 있었다. 개혁가들은 기존 교리의 오류가 성경보다 교회전통을 중시하거나 혹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래된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그릇된 교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스콜라 신학자들의 난해한 주석은 성경의 내용을 오히려 왜곡시켜 왔고, 이 모순은 성경의 어휘와 문법적 구조를 원문 그대로 파악하는 작업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며, 이러한 작업은 곧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학습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종교개혁기 독일의 교육개혁에 있어서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업적을 남겨 ‘독일의 교사(Praeceptor Germaniae)’로 명명된 루터파의 제 2인자 멜란히톤(Philipp Melancthon, 1497-1560)은 어학교육의 신학적 효용성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6) Lewis W. Spitz, *The Reformation: Education and History*(Brookfield, 1997), p. 52에서 재인용.

신학의 근본들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저술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중략] 언어와 말의 형태에 대한 무지로 인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 이는 교회의 투쟁사에 쉽게 드러난다.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면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는 많은 사안들에 대해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어학지식은 신학을 위해 필수적임이 분명하다.<sup>7)</sup>

멜란히톤에게 있어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는 성경에 기록된 신의 뜻을 터득하는 데 더없이 소중한 “하늘의 선물”이었고 어학교육이 도외시되는 것은 “태양이 세상으로부터 없어지는 것보다 더욱 슬픈 일”이었다. 어학능력의 증진은 곧 온당한 교리로 이어지고 나아가 진정한 교회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개혁가들의 입장은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제후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sup>8)</sup>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백미인 수사학 역시 개혁가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학문이었다. 그들이 수사학에 역점을 둔 것은 다름 아닌 성직자의 중추적 기능이 확연히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성사(sacrament)의 의미가 퇴색하고 성경지상주의가 부각되면서 성직자의 주요 임무는 더 이상 성사집전이 아니라 설교와 교육을 통해 평신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루터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일반적으로 사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선포하는 일. 세례를 베푸는 일. 성찬을 축성하고 집전하는 일. 죄를 지우고 푸는 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희생하는 일. 모든 영혼과 교리를 판단하는 일. 확실히 이 일들은 훌륭하고 대단히 중요한 의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으뜸가고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일은 하나님의

7) Philip Melancthon, *Orations on Philosophy and Education*, ed., Sachiko Kusakawa, tr. Christine F. Salazar(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9), pp. 30-31. 멜란히톤에 따르면, 1450년대 말까지 독일과 프랑스에서 그리스어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그 후의 대학교육에서도 아주 미온적으로 수용되었다. *Ibid.*, p. 31, note 2 참조.

8) 인용문구들은 *Ibid.*, p. 36.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sup>9)</sup>

요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여 성경지상주의를 구현하는 일이 성직자의 우선적 책무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또한 개혁가들은 그 동안 숨가쁘게 달려 온 개혁운동의 사활이 프로테스탄트 교리를 사회 저변에 확산시키는 일에 달려 있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절대다수가 문맹이었던 당시 민중에게 성경과 개혁교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주입시키기 위한 학문적 도구는 단연 수사학이었다. 목회의 현장에서 평신도를 가르치고 설득하며 나아가 그들을 감화시켜 새로운 기독교인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에 요구되는 것은 고난도의 논리와 사변적 개념이 아니라 간결하고 명료한 어휘와 문장의 능란한 구사였으며, 수사학의 연마는 바로 이러한 능력의 배양에 제격이었던 것이다.

한편 개혁가들은 또 다른 인문학 과목인 역사학에도 각별한 애정을 퍼력하였다. 멜란히톤에 따르면, 역사학은 과거의 규명을 통해 오늘의 삶에 귀중한 교훈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개인의 삶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재의 모든 현상들은 이미 흘러간 시간 속에 그 선례가 존재하므로 역사는 "하나의 거울"이며, 누구든지 이 거울을 통해 "훌륭하거나 혹은 잘못된 결정들의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0)</sup> 역사학의 종교적 효용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멜란히톤은 역사학이 교리와 교회관습의 옥석을 구분케 하는 잣대로서 매우 값진 기능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1539년 출판된 한 연대기의 서문에서 그는 유아세례의 거부, 개인을 위한 미사, 사도계승설에 근거한 교황주권론 등은 교회사를 연구하면 쉽게 드러나는 오류라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역사를 아는 것은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sup>11)</sup> 역사학이 소중한 종교적 가치를 함유한다는 진단은 멜란히톤의 몫만은 아니었다. 루터는 역사학의 중요

9) "Concerning the Ministry," *LW*, vol. 40, p. 21.

10) Melancthon, *Oration on Philosophy and Education*, p. 33.

11) Philipp Melancthon, "orrede zu Cuspinians Chronik." in Robert Stupperich, *Der unberkannte Melancthon: Wirken und Denken des Praeceptor Germaniae in neuer Sicht*(Stuttgart, 1961), appendix 6, pp. 187-189.

성을 아래와 같이 역설한다.

연대기와 역사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에 포함된다.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더라도 관계없다. 연대기와 역사서는 사건들의 전개과정을 이해하고 안내하는 데 경이로운 도움이 된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sup>12)</sup>

스콜라 신학과 논리학이 독세한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줄곧 외면되어 온 역사학은 이제 종교개혁의 출범과 더불어 촉망받은 학문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위에서 거론한 개혁가들의 인문주의적 교육이념이 현실에 구현되었는가의 여부를 일차 사료를 토대로 하여 실증적 차원에서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루터와 멜란히톤을 비롯한 독일 개혁운동의 수뇌부는 대학교육이 대대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자신들의 염원을 실제로 성취할 수 있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종교개혁을 수용한 지역의 대학들에 과연 인문주의는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는가? 필자는 종교개혁의 본고장인 비텐베르크 대학의 경우 1530년대에 이르러 인문학 과목들이 교과과정에 대거 신규 편성되는 과정의 분석을 통해 개혁가들의 의도가 명실상부하게 구현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sup>13)</sup> 그러나 단일 대학의 사례만으로 전반적인 형국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자 과욕이다. 더구나 비텐베르크 대학은 인문주의적 개혁을 주창한 장본인이었던 루터와 멜란히톤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비견할 데 없는 위상을 누린 교육기관이었고, 따라서 그들이 원했던 바가 비교적 손쉽게 성취되었을 것이며, 이는 비텐베르크 대학이 대학개혁 양상의 보편적 척도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타 대학 사례연구의 당위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sup>14)</sup> 본 논문은 튀빙겐과 하이델베르크 두 대학이 개혁

12) "To the Councilmen of Germany," *LW*, vol. 45, p. 376.

13) 박준철,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관계: 멜란히톤의 비텐베르크 대학 커리큘럼 개편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52호(1997), pp. 1-31.

14) 종교개혁기 유럽의 교육기관에 인문학이 수용되는 과정과 대학 내 인문학의 위상에 대한 개요를 위해서는 Erika Rummel, *The Humanist-Scholastic Debate in the*

운동의 물결에 합류한 후 그 교과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조명하면서 당시의 대세를 기늩해 보고자 한다.

## II. 튀빙겐 대학의 인문주의 개혁

종교개혁사 연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오버만(Heiko Oberman)은 중세 말부터 종교개혁기 까지 튀빙겐 대학의 역사를 다루면서 인문학과 인문주의자들은 당시 이 대학에서 한낱 궁색한 처지에 만족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유서 깊은 전통을 자랑하는 스콜라주의는 대학교육의 구조적 변화를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변적 논리학에 정통하고 또한 강한 애착을 보인 튀빙겐의 교수들은 자신들의 학문적 성향을 위협하는 인문학의 편입을 품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결국 이들의 완강한 거부 앞에 인문학의 도약은 요원한 일이었다는 것이 오버만의 결론이다. “[대학이 설립된] 처음부터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인문학(humaniora),’ 즉 고전어들과 문학의 부활은 감지되지 않았다. 튀빙겐 대학의 전체적인 풍경을 조망해 볼 때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스콜라주의적 연구와 중세 말 신앙의 결합이다.”<sup>15)</sup>

튀빙겐 대학의 학풍에 대한 오버만의 견해는 건학초기에 국한한다면 매우 유효하다. 1476년 교황 식스투스 4세(Sixtus IV, r. 1471-1484)의 설립인가를 얻은 튀빙겐 대학은 이듬해인 1477년 뷁르템베르크(Württemberg)의 군주 에버하르트(Eberhard)에 의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저명한 스콜라 신학자 가브리엘 비엘(Gabriel Biel)을 포함한 40명의 교수와 256명의 학생으로 첫 학기를 시작한<sup>16)</sup> 튀빙겐 대학은 커리큘럼에 있어

*Renaissance and Reformation* (Cambridge, Mass., 1995)와 A. Grafton and L. Jardine, *From Humanism to the Humanities: Education and the Liberal Arts in Fifteenth- and Sixteenth-Century Europe*(London, 1986) 참조.

15) Heiko A. Oberman, *Masters of the Reformation*, tr. Dennis Martin(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1), pp. 15-22. 인용문은 p. 21.

16) Rudolph von Roth, ed., *Urkunden zur Geschichte der Universität Tübingen aus den Jahren 1476-1550*, 이하 *UGUT*(Tübingen, 1877), pp. 462, 471.

서 전형적인 중세대학의 모습을 띠었다. 1477년 설립과 함께 작성된 최초의 정관에 나타난 교양학부의 교과과정은 그야말로 논리학 과목 일색이었다.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 7개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술을 가르치는 과목이 5개(『해석론』, 『분석론 前』, 『분석론 後』, 『주제론』, 『사변적 반박론』)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두 과목 가운데 하나는 훗날 교황 요한 21세로 등극하게 되는 페트루스 히스파누스(Petrus Hispanus)가 1240년경에 저술하고 그 후 중세 대학의 대표적 논리학 교재로 사용된 『논리학 핵심』을 학습하는 강좌였다. 논리학과 무관한 유일한 과목은 알베르투스(Albertus Magnus)가 저술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에 관한 입문서를 교재로 삼았다.<sup>17)</sup> 교양학부 석사과정의 커리큘럼 역시 자연철학, 윤리학, 경제학, 형이상학 등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독점하였다.<sup>18)</sup> 부분적으로 문법이 교육되었으나 그것은 “학습능력이 떨어지거나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위한(pro rudibus et minus fundatis)” 일종의 예비학교인 페다고기움(pedagogium)에서만 실시되었다.<sup>19)</sup> 더구나 문법교육은 문장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의 배양이 아니라 논리학에 필요한 개념정의나 혹은 단어의 형이상학적 의미파악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던 이른바 ‘사변적 문법(speculative grammar)’에 치중하였다는 점에서 인문학의 정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sup>20)</sup> 요컨대 튀빙겐 대학 교양학부의 초기 정규학위과정은 명실상부한 스콜라주의의 발현이었고 인문학은 논리학의 위세에 밀려 철저히 외면되었던 것

17) *Ibid.*, pp. 335-336, no. 22-23. 명시된 필수과목 목록은 “Predicamenta et per arminias [de interpretatione] Aristotelis; Priorum analiticorum; Posteriorum analiticorum; Quator libri Topicorum; Elencorum; Tres primi tractatus Summe Naturalium Alberti; Primus quartus et quintus tractatus Petri Hyspani.”

18) *Ibid.*, p. 336, no. 24-25. “Phisicorum, De celo et mundo, De generatione et corruptione, De anima, Metaphisica, Metheorum, Ethicorum et econimicorum, Paruorum naturalium.”

19) Johannes Haller, *Der Anfänge der Universität Tübingen 1477-1537*(Stuttgart, 1927), vol. 1, pp. 89-90.

20) Terrence Heath, “Logical Grammar, Grammatical Logic, and Humanism in Three German Universities,” *Studies in the Renaissance*, vol. 18(1971), p. 28.



이다.

출범 당시 거의 전무했던 인문학 교육은 시간이 지나면서 간헐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그리스어 강좌가 여러 차례 개설되었고, 1481년에는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 한명이 배정되었으며, 1496년에는 베벨(Heinrich Bebel)이 수사학과 시(詩) 담당교수로 교양학부 교수진에 이름을 올렸다.<sup>21)</sup> 그러나 이러한 강좌들이 학위취득을 위한 정규과목에 포함되었다는 기록이 없고, 또한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1505년에 개정된 정관이 1477년의 정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사과정 학생들은 학위취득을 위해서 종전과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과목들과 페트루스의 『논리학 핵심』의 수강이 요구되었고, 석사과정의 필수과목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이 고스란히 장악하였다.<sup>22)</sup> 새로 두 가지 규정이 추가되었는데, 이 규정들은 스콜라주의에 대한 튀빙겐 대학의 선호도가 오히려 견고해지고 있음을 예증한다. 당초 페다고기움에 국한되었던 사변적 문법 강좌가 기숙사(bursa)에 개설된 연습과목에 까지 확대되었고, 강좌담당교수는 사변적 문법을 대표하는 도나투스(Donatus)와 알렉산더 빌레뒤(Alexander Villedieu)의 저작을 그 교재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sup>23)</sup> 한편 석사과정 학생들은 학사과정에서 습득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습강좌에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4)</sup>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세 말 튀빙겐 대학 교양학부 교육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논리학에 능통한 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스콜라주의의 교두보라 할 수 있는 논리학은 정확하고 엄밀한 지식추구의 보편

21) UGUT, p. 71; Haller, *Der Anfänge*, pp. 210-211.

22) UGUT, pp. 331-333.

23) *Ibid.*, p. 416: “Item volumus, quod in ambabus bursis et pedagogio iuvenes imbuanur in exercicio grammaticali, in Donatu et partibus Alexandri per iuramentum...” 도나투스가 500년경 저술한 *Ars grammatica*와 알렉산더의 *Doctrinale*(1199)는 중세대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문법교재다.

24) *Ibid.*, p. 333.

적 수단으로서 교양학부 커리큘럼을 평정하였고, 문법과 자연철학 교육 또한 이미 축적된 논리학적 능력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이를 적용시키는 양태로 실시되었던 것이다. “논리학은 모든 과목의 원리를 이해케 하는 학문 중의 학문이요 과학중의 과학”<sup>25)</sup>이라는 『논리학 핵심』의 권두언의 정신은 튀빙겐 대학 학풍의 근간을 이루었고, 이는 14세기 이탈리아에서 발흥하기 시작한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튀빙겐에서는 아직 생소한 교육이념이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었다. 인문학은 학위취득과 무관한 비정규과정에서만 근근이 그 명맥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튀빙겐 대학 석사과정에서 수학했던 멜란히톤이 그곳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려 했던 것은 “중대한 잘못”이었다고 회상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sup>26)</sup>

그러나 튀빙겐 대학에서 “새로운 학문’은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sup>27)</sup>는 오버만의 판단은 1520-1530년대에 발생한 중대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오판이었다. 1520년대에 들어와 인문주의는 튀빙겐 대학에서 어엿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1530년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스콜라주의를 제치고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튀빙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의 징후가 처음 나타난 것은 1510년대 말 뷤르템베르크가 겪었던 정치적 소요와 사회적 혼란이 진정되면서 부터이다. 튀빙겐 대학의 후견인이었던 뷤르템베르크 공작 울리히(Ulrich)는 슈바벤(Schwaben) 동맹과 침예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전쟁에서 패배한 울리히가 자신의 영토에서 축출된 후 뷤르템베르크는 황제 칼(Karl) 5세의 동생 페르디난트(Ferdinand)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새로이 들어선 당국은 튀빙겐 대학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매우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1521년 그리스어와 히브리어가 학위취득을 위한 정규과

25) “Dialectica est ars artium et scientia scientiarum ad omnium methodorum principia viam haben,” Walter J. Ong, *Ramus Method, and the Decay of Dialogue*(Cambridge, Mass., 1958), p. 60에서 재인용.

26) *Corpus Reformatorum. Philippi Melancthonis Opera*, ed. Carlos G. Bretschneider and Henricus E. Bindseil, 이하 CR(Halle, 1834-1860), vol. 1, p. 680, no. 292: “[schola, ubi] capitale erat attingere meliores literas.”

27) Oberman, *Masters of the Reformation*, p. 17.

정에 편입되었던 것이다.<sup>28)</sup> 위에서 언급한대로 그리스어는 줄곧 비정규 과목에 해당하였고, 히브리어는 1512년 불과 몇 개월간 한 계약직 교수(Mattäus Adrian)가 담당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sup>29)</sup> 그동안 척박한 음지에 머물렀던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는 이제 튀빙겐 교양학부 학생은 누구나 학습해야 할 대상으로 승격하였고 더구나 멜란히톤의 외종 조부이자 에라스무스에 버금가는 걸출한 인문학자 로이힐린(Johannes Reuchlin)이 두 고전어의 담당교수로 부임함으로써 남부럽지 않은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1525년에 실시된 개혁 또한 인문학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범 유럽적 명성을 누린 로이힐린 덕분에 한 때 급증했던 튀빙겐의 학생 수는 1522년 그의 사망 후 다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sup>30)</sup> 대학의 위기를 감지한 페르디난트는 5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교과과정과 행정의 부분적 개혁을 단행하였다.<sup>31)</sup> 사변적 문법에 편향되었던 문법교육은 그 성격이 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도나투스과 알렉산더의 저작을 교재로 명시한 1505년 정관과 달리 1525년의 규정은 교재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실상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1531년 튀빙겐 대학의 한 방문기록에 따르면, 신입생들이 페다고기움에 개설된 라틴어 문법 강좌에서 사용한 교재는 인문학적 문법서였음을 밝히고 있다.<sup>32)</sup>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담당한 교수들은 과거와 달리 스콜라 신학자들의 주석에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었다. 프랑스의 대표적 휴머니스트인 르페브르(Jacques Lefèvre d'Étaples)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술을 의역한 교재의 사용이 허락되었던 것이다.<sup>33)</sup> 기숙사에서 실시된 논

28) Haller, *Der Anfänge*, p. 310.

29) *Ibid.*, p. 311.

30) 해당시기 튀빙겐 학생 수의 변동수치에 관해서는 독일교육사 연구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Friedrich Paulsen, *Geschichte des gelehrten Unterrichts auf den deutschen Schulen und Universitäten*(Leipzig, 1897), vol. 2, appendix II, pp. 692-693 참조.

31) "Ordinatio Regis Ferdinandi 1525," *UGUT*, no. 33, pp. 141-152.

32) Heath, "Logical Grammar," p. 32.

33) *UGUT*, p. 147: "Docebunt inprimis Paraphrasticam Iacobi Fabri Stapulensis in

리학 연습과목에서도 유사한 주문이 내려졌다. 담당교수는 르페브르의 저서 또는 『논리학 핵심』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고 만일 “학생들이 이 책들을 원치 않는다면” 인문학자 아그리콜라(Rudolphus Agricola)의 저서로 대체할 수 있었다.<sup>34)</sup>

1520년대에 비로소 인문주의에 문을 개방한 튀빙겐 대학은 뷔르템베르크가 프로테스탄트 진영에 가담한 후 매우 중대한 개혁에 착수하게 된다. 뷔르템베르크에서 축출되어 분루를 삼키고 있었던 올리히는 프로테스탄트 세력의 강력한 지지자이자 자신의 사촌인 헤센의 백작 필립(Landgraf Phillip von Hessen)의 군사적 도움으로 라우펜(Lauffen) 전투에서 승리한 후 1534년 5월 뷔르템베르크의 군주로 복귀하였고 곧바로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였다. 올리히는 튀빙겐 대학의 개혁을 멜란히톤에게 거듭 요구하였고, 마침내 멜란히톤은 이를 수락하여 1536년 9월 튀빙겐 대학에 도착하였다. 튀빙겐에서 그리스어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자신의 제자 카메라리우스(Joachim Camerarius)를 통해 그곳의 상황을 이미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멜란히톤은 올리히에게 개혁의 지침을 제공하였고, 올리히는 이에 입각하여 1536년 11월 3일 새로운 정관을 공포하였다.<sup>35)</sup>

1536년 정관은 교양학부 교과과정의 판도가 인문학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교양학부에 배정된 열 명의 교수 가운데 아홉 명은 각각 논리학, 수사학, 물리학, 윤리학,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수학, 아리스토텔레스(과목명은 미상)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었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산수, 기하학, 천문학이 함께 배정되었다.<sup>36)</sup> 요컨대

Dialectica Aristotelis in interpretationem……” Jacob Faber Stapulensis는 르페브르의 다른 이름.

34) *Ibid.*, pp. 147-148: “alterum Aquile, alterum Pauonis nomine de caetero appelletur, legant et doceant… parva Logicalia Fabri uel Petri Hispani Textum, aut si hunc quoque fastidiant Auditores, Rudolphum Agricolam uel Trapezuntium.”

35) “Herzog Ulrichs zweite Ordnung vom 3. November 1536,” *UGUT*, no. 39, pp. 185-198. 1535년 1월에도 커리큘럼 개혁이 있었으나 교수들의 반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Haller, *Der Anfänge*, pp. 335 ff. 참조.

36) *Ibid.*, p. 187: “Auch vier Lectiones in artibus gehalten werden, vnd dann aine besondere Aristotelis Auch aine Elementorum Arithmeticae vnd Geometriae vnd

교양학부의 교수 절반이 인문학을 가르치게 된 반면 지난날 커리큘럼을 장악했던 논리학은 불과 단 한명의 교수가 담당하는 두드러진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더구나 스콜라주의를 상징하는 『논리학 핵심』은 종적을 감추게 되었다. 르네상스 휴머니스트들이 가장 선호했던 수사학은 튀빙겐 대학의 정규 프로그램에 최초로 편입되었고 나아가 논리학과 더불어 학사학위 취득에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명시되었다.<sup>37)</sup> 한편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는 학사과정 뿐만 아니라 석사과정에서도 학습되어야 할 대상으로 승격되면서 그 입지를 견실하게 구축하게 되었다.<sup>38)</sup> 라틴어 교육은 더 이상 사변적 문법교재가 아니라 “훌륭한 작품, 특히 시인들의 작품”을 다루도록 규정되었다.<sup>39)</sup> 히브리어는 “성경을 유익하게 연구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들에게 매우 필요”하고, 또한 “이 언어는 신학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에 특별히 유용”함으로, 히브리어 교수는 신학에 능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학 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했다.<sup>40)</sup> 뿐만 아니라 수사학과 어학을 담당한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매주 수사학의 연설연습을 시키도록 요구되었다.<sup>41)</sup>

Sphaerae, ainer der Mathematicam lese, Ainer authores praecipuous vnd fürnemliche buecher in der Lateinischen, einer dessgleichen in der Griechischen Sprache, Ain Hebraeus.” “vier Lectiones”는 논리학, 수사학, 윤리학, 물리학임이 틀림없다. 아래 각주 37 참조

- 37) *Ibid.*, pp. 189-190: “In artibus zulesen, für die so Baccalarij zuweden begern, Dialectica vffs verstendigst vnd geschicktest derglichen auch Rethorica. . . . Für die so Magistri wöllen werden zulesen Physica vnd Ethica.”
- 38) *Ibid.*, p. 190.
- 39) *Ibid.*, p. 190: “auch ein stund zulesen in der Lateinischen sprach die fürnemlichen Biecher, sonderlich Poetarum.”
- 40) *Ibid.*, p. 190: “Item ein Lection in der hebraischen sprach hoch vonnöten allen denen, so in der heiligen schrift fruchtbarlich zustudiern fürhaben.” p. 192: “Aber der Lector hebraicae linguae, dieweil dise sprach zu der theologischen Profession fürnemlich dienet, solle auch zu der Theologia getzogen werden vnd in Theologia ainen gradum haben, oder ia dartzu complirn.”
- 41) *Ibid.*, p. 191: “söllen. . . zu mernern die lectores der lateinischen vnd griechischen sprach facultati Artium. . . und fürnemlich mit sampt dem lectori Retorices die Declamation vnd Exercitia Retorica in rechtem gang vnd übung erhalten.”

튀빙겐 대학의 1536년 정관은 종교개혁이 인문학의 제도적 정착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예증한다. 건학이후 줄곧 논리학의 독무대였던 교양학부 교과과정은 1520년대에 들어와 인문학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고, 뷔르템베르크가 프로테스탄티즘으로 선회한 후 인문학은 이제 스콜라주의를 압도하면서 튀빙겐의 주도적 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개혁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학문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개혁가들의 열망이 제대로 구현된 것이다. “대학들 역시 유익하고 철저한 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루터의 요구에 튀빙겐 대학은 나무랄 데 없이 호응한 셈이다.

### III.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인문주의 개혁

독일대학 가운데 가장 오래된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중세 말부터 종교개혁기에 이르기까지 튀빙겐과 유사한 커리큘럼 변천사를 경험하였다. 팔츠(Pfalz)의 군주 루프레히트(Ruprecht) 백작이 1385년 교황 우르바누스 6세(Urbanus VI, r. 1378-1389)의 인가를 얻어 설립한 하이델베르크는 파리 대학을 그 모델로 삼았다. 파리 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마르실리우스(Marsilius von Inghen)가 초대 총장으로 선임되었고, 루프레히트와 우르바누스의 인허장은 이 대학이 파리 대학의 조직과 학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였다.<sup>42)</sup> 스콜라주의의 본산인 파리 대학의 영향력은 교과과정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하이델베르크 교양학부의 가장 오래된 정관<sup>43)</sup>은 이 대학의 교육의 좌표가 논리학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수강해야 할 아홉 과목 가운데 여섯 과목이 논리학이었다. 나머지 세 과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 『물리

42) Hastings Rashdall, *The Universities of Europe in the Middle Ages*, ed., F. M. Powicke and A. B. Emden(Oxford, 1936), vol. 2, p. 251.

43) 1402년 뒤늦게 대학문서철에 등록된 이 정관은 대학설립 초기부터 실시되어 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duard Winkelmann, ed., *Urkundenbuch der Universität Heidelberg*, 이하 *UBUH*(Heidelberg, 1886), vol. 1, pp. 33, 35의 각주 참조.

학』, 그리고 알렉산더의 사변적 문법서(*Doctrinale*)를 교재로 삼았다.<sup>44)</sup> 교양학부 커리큘럼의 논리학 편중은 이후 더욱 심화된다. 1444년 정관 역시 아홉 과목을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알렉산더의 사변적 문법을 대신하여 논리학 과목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sup>45)</sup> 한편 1452년부터 학부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논리학 과목은 무려 아홉으로 늘어났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은 석사과정으로 자리를 옮긴 반면, 그의 논리학 저술인 『해석론』과 『범주론』을 각각 가르치는 과목들이 학사과정 커리큘럼에 새로 편입된 것이다.<sup>46)</sup> 지금까지 살펴 본 세 개의 정관은 중세 말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학풍이 스킨라주의에 깊이 뿌리하고 있음을 극명히 예증하였다. 교양학부는 그야말로 ‘논리학 학부’와 다름없었고, 수사학과 고전어를 포함한 인문학의 유입은 완전히 봉쇄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하이델베르크의 보수성은 1510년대 말까지 견고히 유지되었다. 대부분의 독일 대학들은 1450년경부터 비록 미온적으로나마 인문학을 수용하였다.<sup>47)</sup> 타 대학들의 심상치 않은 변화에 자극받은 교양학부 교수들은 1513년 9월 대학 당국에 “보다 세련된 학문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교수 영입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다른

44) “Alteste statuten der artisten,” *Ibid.*, vol. 1, no. 23, p. 34: “Item statuit dicta facultas, quod scolares ad gradum baccallariatus in artibus promovendi iurent infrascripta. Primo... doctrinale Allexandri... Item... summulas Petri Hispani... Item veterem artem, scilicet Porphirium predicamenta Aristotelis... et librum priorum... Item duo libros prosteriorum... duo libros elencorum, quator libros thopicorum... Item... octo libros phisocorum... Item... librum de anima Aristotelis...”

45) *Ibid.*, vol. 1, no. 101, pp. 152-153.

46) “Lektionsplan des ganzen Jahres nach der Statutenredaktion von 1452/1502 pro via antiqua,” in Gerhard Ritter, *Die Heidelberger Universität* (Heidelberg, 1936), vol. 1, appendix 1, p. 495. 이 강의규정은 1452년에 작성되었지만 1502년에 대학문서철에 기록되었다.

47) Lewis Spitz, “The Course of German Humanism,” *Itinerarium Italicum: The Profile of the Italian Renaissance in the Mirror of Its European Transformation*, ed., Heiko Oberman and Thomas A. Brady, Jr. (Leiden, 1975), pp. 390-401.

대학들의 경우 이러한 조치가 명성과 유익을 가져왔다"는 것이다.<sup>48)</sup> 그러나 대학당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스콜라주의에 집착한 하이델베르크는 결국 1510년대 말까지 단 하나의 인문학 과목도 개설하지 않은 유일한 독일대학이었다. 1511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멜란히톤은 모교에서의 학창시절을 이렇게 회고하였다. "그곳에서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배운 것은 수다스러운 논리학과 약간의 물리학이 전부였다."<sup>49)</sup> 논리학은 그 자리를 좀처럼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고, 스콜라주의는 그 영역을 고수하면서 하이델베르크를 '독일의 파리 대학'으로 존속시켰던 것이다.

변화의 조짐은 152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나타났다. 신입생의 급감과 인문학에 대한 타 대학의 점진적 개방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교양학부 교수들은 1521년 8월 13일 에라스무스의 임용을 촉구하였다. 튀빙겐이 최근 로이힐린을 받아들인 것처럼 하이델베르크가 에라스무스를 구성원으로 맞는다면 "이 대학에서 과거의 학문적 광영이 재건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sup>50)</sup> 대학 당국이 이번에도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하자 이제 교양학부 교수들은 같은 해 12월 하이델베르크의 후견인이자 팔츠의 군주인 선제후(Kurfürst) 루드비히(Ludwig) 5세에게 로이힐린이 추천한 인문학자 뵉셴슈타인(Johannes Böschenstein)을 히브리어 담당 교수로 채용할 것을 간청하였다.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뵉셴슈타인은 15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임용되었다.<sup>51)</sup> 한편 1522년 9월에는 또 다른 인문주의자 오이코람파디우스(Oecolampadius)가 그리스어 교수로 부임예정이었으나 행정상의 착오로 무산되었다.<sup>52)</sup>

48) *UBUH*, vol. 2, no. 653, pp. 70-71: "Artisten fak. legt der univ. die notwendigkeit dar, einen professor anzustellen, der die politiores litteras ordinarie et publice lese, wie das anderen akademien zu ruhm und vorthail gereiche."

49) *CR*, vol. 4, p. 715: "Ubi cum adolescentibus nihil publice tradetetur praeter illam garrulam Dialecticen, et particulam Physices."

50) *UBUH*, vol. 2, no. 705, p. 76.

51) *Ibid.*, vol. 2, no. 708, p. 77.

52) *Ibid.*, vol. 2, no. 716, p. 78.



하이델베르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는 1522년 12월 22일 단행된 개혁으로 비로소 안정된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비록 1522년 정관은 이듬해에도 17세기에 사라졌지만<sup>53)</sup>, 그 내용은 부분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524년 고전어를 담당하는 두 명의 정규 교수가 임용되었다. 훗날 튀빙겐 대학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그리네우스(Grynaeus)는 그리스어 교수로, 그리고 뮌스터(Sebastian Münster)는 뷔셴슈타인이 사직한 후 공석으로 남아있던 히브리어 교수로 교양학부에 합류하였던 것이다. 그 후 고전어 과목들은 하이델베르크의 정규과목으로 지속적으로 개설되었다.<sup>54)</sup>

1520년대 초 고전어에 손을 내밀었던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전격적으로 인문학을 수용한 것은 1550년대 후반의 일이었다. 이번에도 산과역을 담당할 것은 종교개혁이었다. 1556년 2월 선제후가 된 하인리히(Otto Heinrich)는 즉위와 함께 종교개혁을 자신의 영토에 선포하였고 4월에는 팔츠의 교회들을 프로테스탄티즘에 입각하여 재조직하였다. 이제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교리를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 맞는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하인리히는 하이델베르크의 졸업생이자 대학개혁에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을 소유한 멜란히톤을 책임자로 염두에 두었다. 루터가 사망한 후 비텐베르크를 지켜야했던 멜란히톤은 하인리히의 초청을 정중히 고사하였으나 1557년 8월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하인리히를 만난 후 마침내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sup>55)</sup> 10월 22일 하이델베르크에 도착한 멜란히톤은 미킬루스(Jacob Micyllus)<sup>56)</sup>와 함

53) August Thorbecke, ed., *Statuten und Reformation der Universität Heidelberg vom 16. bis 18. Jahrhundert*, 이하 *SRUH*(Leipzig, 1891), p. ii.

54) Johannes F. Hautz, *Geschichte der Universität Heidelberg*(Mannheim, 1862), pp. 372-379는 1523년부터 1546년까지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담당교수의 명단을 보여준다.

55) Hans Engelland, "Melancthon's Bedeutung für Schule und Universität," *Luther, Mitteilungen der Luthergesellschaft*, vol. 31(1960), p. 30.

56) 미킬루스는 멜란히톤의 천거로 1532년부터 하이델베르크에서 그리스어 교수로 재직해 왔다.

게 개혁안을 마련하였고, 이 개혁안에 기초한 새로운 정관이 이듬해 12월 19일에 공포되었다.

1558년 정관은 종교개혁이 인문주의의 정착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확연히 보여준다. 교양학부에 배정된 다섯 명의 정규 교수들은 각각 그리스어, 윤리학, 물리학, 수학, 그리고 시와 수사학과 역사학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었다.<sup>57)</sup> 어학은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어학지식의 습득 없이는 철학을 물론 신학을 포함한 상위학부의 학문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하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58)</sup> 그리스어 교수는 “최고 작가들”(호메로스, 헤시오도스, 테오크리토스, 아폴로니오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리스토파네스, 핀다로스, 아라토스, 데모스테네스, 플라톤, 투키디데스, 헤로도토스, 제노폰 등)의 작품을 이용하여 문법을 교수하도록 요구되었다.<sup>59)</sup> 고전의 문체와 거기에 내재된 지혜를 흠모했던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모습이 강렬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그동안 교양학부에 개설되어 왔던 히브리어 강좌는 신학부로 이동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록 이 대학에서 지금까지 히브리어는 교양학부에서 학습되는 것이 관

57) “Die Reformation des Kurfürsten Otto Heinrich vom 19. December 1558,” *SRUH*, p. 96: “setzen wir und wollen mit sondern ernst, das hinfurter zu allen zeiten in diser faculteten fünf publici professores seien, als nemlich einer, welcher linguam graecam, wie bis anhero auch gewesen, offentlich profitir und lehre, der ander aber soll ethicam, der dritt physicam, der vierdt mathematicam und der funft poeticam und oratoriam publice lesen und dociren.” 시와 수사학을 담당한 다섯 번째 교수는 역사도 담당했음이 아래 각주 63에 나타난다.

58) *Ibid.*, p. 96: “die sprachen, ohne welche die philosophi, noch das mehrer und höher theil der obern faculteten nicht recht verstanden, explicirt oder ausgelegt werden können, in obgemelter faculteten furgetragen und gelehrt... werden müssen und sollen.”

59) *Ibid.*, pp. 98-99: “die erste, das ist der griechischen sprachen... und iederzeit die beste authores, als da seint: Homerus, Hesiodus, Theocritus, Apollonius, Sophocles, Euripides, Aristophanes, Pindarus, Aratus, etc., item Demosthenes, Plato, Thucidides, Herodotus, Xenophon und dergleichen gelesen, gleichwie auch derselben sprachen grammatic...”

행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어가 주로 성경공부를 위해 학습되며 또한 성경공부에 특별히 유용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많은 독일 대학에서 히브리어 강좌가 신학부에 개설된 점을 감안하여 이 언어가 신학부에 개설되기를 원한다.<sup>60)</sup>

히브리어 강좌는 일주일에 다섯 번의 수업이 규정되었는데, 세 번은 구약성서를 교재로 삼아 문법교육이 실시되어야 했다.<sup>61)</sup> 성경의 내용을 원어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개혁가들의 의지가 커리큘럼 속에 체현된 것임이 틀림없다. 물리학과 윤리학에도 인문주의적 색채가 깊이 배어들었다. 『영혼론』에 대한 멜란히톤 본인의 주해가 물리학 교재 가운데 하나로 채택되었고, 키케로의 작품이 윤리학 교재에 포함되었다.<sup>62)</sup> 시와 수사학 그리고 역사학을 함께 담당했던 교수는 “가장 뛰어난고 가장 출중한 시인들”과 리비우스와 카이사르와 같은 역사가들의 저작들을 수업에서 다루도록 규정되었다.<sup>63)</sup> 요컨대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를 구성하는 다섯 학문 모두가 교양학부 정규과정에 편성되었던 것이다. 한편 오랜 세월 교양학부에서 굳림해 온 논리학은 여전히

60) *Ibid.*, p. 41: “wiewol biß daher bei diser universitet der prauch gewesen, das die hebraische sprach zu der artisten facultet gezogen... jedoch auch erinerung, das dise hebraische sprach mehrern theilß umb der heiligen geschrift willen gelehrt und studirt wirdet, dorzu si auch sonderlich nutzlich und nottwendig, und darum bei vilen universiteten teutschen landß zu der theologischen facultet verordnet ist, so haben wir dise sprach zu derselben facultet zihen und anstellen wollen.”

61) *Ibid.*, p. 41: “nuhn hinfurter der secundarius lector in facultate theologica zu einer wochen funf lectiones versehen, und nemlich: zwo in grammica hebraea, die er für und für repetirn soll, und drei in expositione grammatica und theologica psalmorum oder geneseos oder deuteronomii oder Esaiae oder proverbiorum Salomonis oder mirorum prophetarum.”

62) *Ibid.*, p. 99.

63) *Ibid.*, p. 100: “Der funft professor, dem poesis und historiae insonderheit befohlen, soll seine lection von sieben uhrn vor mittag biß uff acht ieder zeit halten und alletzeit die pesten und furnemisten poeten. Es mag aber diser professor zun zeiten auch ex historia vera, als aus dem Livio ettliche bucher und Caesarem für die hand nemen...”

필수과목으로 존속했지만 기숙사(contubernium) 과목으로 강등되었고, 이를 담당한 자에게는 “모든 불필요한 표현과 설명을 피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졌다.<sup>64)</sup> 지나치게 사변적인 논리학 교육에 일침을 가하는 조항이었다.

1558년 개혁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1510년대 말까지 “수다스러운 논리학과 약간의 물리학이 전부”였다가 1520년대 초에는 교전어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학문에 다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하이델베르크 교양학부의 커리큘럼은 이제 일거에 인문학의 보금자리로 탈바꿈하였다. 이와 같은 판도변화를 재촉한 것은 인문학의 확산을 통해 교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개혁가들의 단호한 의지였다. 팔츠가 종교개혁의 열풍에 동승하게 되면서 팔츠를 대표하는 상아탑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더 이상 종전의 학풍을 고집할 수 없었고 결국 개혁운동에 학문적으로 부응해야만 했던 것이다. 개혁운동의 진가가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까지 확장된 셈이다.

#### IV. 종교개혁과 독일대학

“루터주의가 뿌리를 내린 곳에 학문은 사라진다.”<sup>65)</sup> 불세출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가 한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피력한 내용이다. 한 때 루터를 지지했던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예측과 달리 점차 급진적 양상을 띠어가는 개혁운동으로 인해 대학의 교육과 학문이 예사롭지 않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진단한 것이다. 개혁운동의 전개과정을 낱알이 깨뚫고 있었던 그의 진단은 일견 타당성을 띠고 있음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진리탐구의 영토였던 대학이 첨예한 교리적 공방의 현장으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쾰른 대학의 신학자들은 루터의 교리를

64) *Ibid.*, p. 101: “derselbig lector soll... alleß unnöttig dictiren und glossiren underlassen...”

65) Notker Hammerstein, “Universitäten und Reformation,” *Historische Zeitschrift*, vol. 258(1994), p. 339에서 재인용.

규탄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비텐베르크 교수들은 이에 맞서 개혁교리의 당위성을 수호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뜨겁게 타오른 신학논쟁은 독일을 넘어 파리와 루뱅 등 유럽의 여러 대학을 종파적 투쟁의 화염 속으로 몰고 갔다. 한편 학문과 교육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면서 일종의 몽매주의(obscurantism)를 지향한 칼슈타트(Andreas von Karlstadt)와 이른바 '츠비카우(Zwickau)의 예언자들'의 과격한 행보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었다. 많은 지식인들은 이 사태를 개혁운동이 조장한 부산물로 간주하였다. 게다가 독일의 중남부를 유린한 1525년 농민전쟁 또한 개혁운동의 부작용으로서 대학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 무자비한 폭력과 살상이 도처에서 난무 하는 가운데 학생 수는 급감하였고 대학의 학사운영은 커다란 차질을 빚었다. 요컨대 종교개혁은 독일 대학에 격동과 시련을 의미하기도 하였던 것이다.<sup>66)</sup>

그러나 종교개혁이 독일대학에 가해자였다는 것은 일방적 판단이다. 튀빙겐과 하이델베르크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독일의 상아탑들은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과 학문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개혁가들은 자신들의 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학문적 도구로 인문학의 확산을 모색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대학 교과과정의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그 결과 오랜 세월 비주류 학문이었던 인문학은 이제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당당한 위치를 누리게 되었다. 물론 인문학의 도약을 종교개혁에만 돌리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다. 이탈리아에서 발아한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15세기를 통해 점차 알프스 이북으로 전이되었고, 독일대학 또한 이러한 시대적 대세를 한사코 외면할

66) 개혁운동이 독일대학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Jürgen Bücking, "Reformversuche an den deutschen Universitäten in der frühen Neuzeit," H. Rabe, H. Molitor, and H. Rublack, eds., *Festgabe für Ernst Walter Zeeden*(Münster, 1976), pp. 355-369; D. S. Hemsall, "Martin Luther and the Sorbonne, 1519-1521,"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Historical Research*, vol. 48(1975), pp. 28-40; Erwin Iserloh, "Evangelismus und katholische Reform in der italienischen Renaissance," August Buck, ed., *Renaissance/Reformation, Gegensätze und Gemeinsamkeiten*(Wiesbaden, 1984), pp. 35-46; Daniel Olivier, *The Trial of Luther*(St. Louis, 1978), pp. 104-111 참조.

수만은 없었다. 위에서 거론한 대로, 튀빙겐과 하이델베르크 역시 개혁의 대열에 동참하기 전 이미 인문학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인문학이 독일 대학에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단연 종교개혁이었다. 튀빙겐과 하이델베르크의 소재지가 개혁운동으로 선회하자마자 인문학은 교양학부 교육과정의 한 복판을 차지한 반면 스콜라주의의 반려자인 논리학은 화려했던 옛 명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는 훌륭한 단서이다. 비록 개혁가들에게 인문학의 확산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했지만, 인문학은 종교개혁에 힘입어 고단한 과거를 마감하고 독일대학의 신진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문학이라는 학문에게 종교개혁은 정녕 하나의 쾌거였다. “루터주의가 뿌리를 내린 곳에 학문은 사라진다”는 단언에 흔쾌히 동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투고일자: 2008. 4. 23, 게재확정일자: 2008. 5. 31〉

〈Abstract〉

**Humanistic Reform of German Universities in the Reformation Era: A Case Study on the Universities of Tübingen and Heidelberg**

Joon Chul Park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mpact of the Reformation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ism in the German academic world by shedding light on the curricular reform of two universities, Tübingen and Heidelberg. Such reformers as Luther and Melancthon thought that the so-called 'studia humanitatis' would play a crucial role in implementing the ideal of 'sola Scriptura' and Protestant doctrines in the ordinary life of the German populace. They firmly believed in the necessity of language study for the right interpretation of the Bible. They also laid great emphasis upon the importance of rhetoric for future pastors, who would teach the Bible and Lutheran message to the mass. History was regarded as a valuable instrument for discerning the theological and ecclesiastical errors the Catholic Church committed in the past. Thus the reformers lamented the dominance of scholastic dialectics in the university study and insisted that university curriculum be reformed with humanistic studies.

The medieval universities of Tübingen and Heidelberg, from the time of their foundation, had long cherished scholastic studies. The curriculum of their arts faculty was monopolized by dialectics; the 'studia humanitatis' including classical languages(Greek, Hebrew) could not enter into the curriculum at all or were overshadowed by speculative dialectics. In spite of some progress in both institutions during the early decades of the 16th century, humanistic studies were in peripheral status; the deep-seated traditions remained unchallenged. However, the Reformation changed the situation drastically. As soon as their patrons adopted Protestantism, these universities experienced radical curricular reforms. The reformers filled the curriculum with humanistic subjects while striking a lethal blow to scholasticism. The Reformation, albeit for its own purposes, planted, fostered, and perpetuated the humanistic studies in the

German universities.

(Hansung University / jcpark@hansung.ac.kr)

주제어(Key Words)

1. 대학교육(University Education)
2. 종교개혁(Reformation)
3. 스콜라주의(Scholasticism)
4. 인문학(Humanistic Studies)
5. 교과과정 개혁(Curricular Reform)